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곽윤경|

중년의 이종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변금선|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이아영|

사회불안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

|구혜란|



노인¹⁾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Economic Resources an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재산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원 부재를 고려하면 높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낮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위험에 대응할 자원 부족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돈은 필요한 수단적 가치를 갖는다. 경제적 궁핍함으로 삶이 피폐해지거나 빚에

시달리다 자살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 등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경제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소득 및 재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은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 자원이라는 점과 연결된다. 사회

1) 75세 미만을 전기 노인, 75세 이상을 후기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Heisel & Flett, 2006; 곽윤경 외, 2021, p. 13 재인용). 이 글에서 노인의 정의는 65~74세 전기 노인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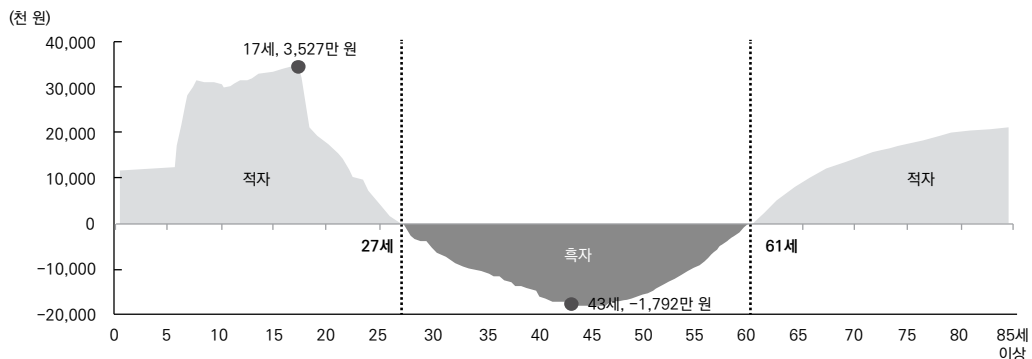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위험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O'Keefe et al., 1976). 그러나 이에 대응할 자원은 더 적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곽윤경 외, 2021, p. 90).

노인기는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는 시기이다. 이때 경제적 자원의 부족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의료서비스, 주거 안정성,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성 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Santini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불안정이 노인의 불안(anxiety), 우울,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자원 부족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은 깊이 연결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의 사회적 안정성 증진을 위한 단계로서 이들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노인에게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인당 경제적 생애주기 추이를 살펴보면 61세부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2023). 즉 노인기에 들어서면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기가 시작된다. 노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직업생활에서 은퇴하고, 이로 인해 정기적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필요도 커진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급여

[그림 1] 1인당 생애주기 적자



출처: "2021년 국민이전계정", 통계청, 2023.11.28, 통계청 보도자료, p. 4.

변화 및 급여 중단 가능성으로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재의 공적연금 또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축적한 소득의 결과인 재산의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소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재산은 노인기에 특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즉 노인기에는 소득은 높이고, 재산은 축적하고자 하는 행태와 축적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가 모두 강할 수 있다(곽윤경 외, 2021). 이는 곧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이 이들의 실제 필요와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사회적 불안의 근원과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불안 개념 및 주요 변수

가. 사회적 불안 개념 및 문항 구성

사회적 불안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안전사고,

불신의 경험,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으로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느끼는 불안정한 기분이나 경험(이현주 외, 2020)을 의미한다. 사회적 불안은 용어에서 내포하듯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불안 원인이 개인 기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이현주 외, 2023a). 사회적 불안은 그 사회에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시위, 시민단체 가입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긍정적 방향의 행동을 이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박수애, 송관재, 2005; 이현주 외, 2023a 재인용). 사회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부정적이고 위축된 행동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이현주 외, 2023a 재인용).

이 글에서는 2020~2022년 진행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²⁾ 중 2021년 만 65~74세의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표 1>에 제시된 24개의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을 통해 사회적 불안 인식을 파악하였다. 이 글에서는 24개의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를 2019~2023년 진행하였다. 이 과제의 일환으로 2020~2022년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2020년 청중년 대상 3000명, 2021년 노인 대상 1000명, 2022년 중년 대상 3000명).

사회적 불안 척도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적 불안 인 식(24개 문항의 평균 점수)과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영역으로 유형화된 영역별 사회적 불안 인식을 활 용한다.³⁾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요인은 사 회적 경쟁과 격차의 심화가 불안을 조성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격차·경쟁 불안’, 사회적 불공 정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불공정·불 확실 불안’, 개인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하는

[표 1] 사회적 불안 문항 구성

| 구분 | 변수 설명(설문 문항) | |
|-----------|---------------------------|---|
| 사회적 불안 인식 |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 점수 | |
| 영역 | 격차·경쟁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뒤떨어지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현재의 취업 불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럽다 |
| | 불공정·불확실 불안 요인 6개 변수 평균 | 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줄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
| | 안전 불안 요인 5개 변수 평균 | 다른 사람과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경찰이 하는 일을 믿을 수 없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가끔 안전사고의 위험을 느낀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
| | 정부 불신 불안 요인 3개 변수 평균 | 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정부의 위함·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 적응·도태 불안 요인 4개 변수 평균 |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우리 사회는 변하는 것이 많고 변화 속도가 빨라서 적응하기 어렵다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

주: 각 문항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묻고 있음.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조사에서 사회적 불안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단문의 사회적 불안 인지를 묻는 문항과 사회적 불안의 주요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된 24개의 지수화된 측정 문항, 두 가지 종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지수화된 사회적 불안의 측정은 선행 연구 중 사회적 불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에서 활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선정(이현주 외, 2020)하였다. 단문으로 측정한 사회적 불안 인식과 달리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 평균 점수의 사회적 불안 인식에서는 불안 수준뿐만 아니라 불안 내용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회적 불안의 다면적 성격을 담고자 24개 사회적 불안 척도의 평균 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영역으로 유형화된 변수를 함께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안전 불안’,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불러일으키는 불안을 다루는 ‘정부 불신 불안’,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적응·도태 불안’으로 개념화된다.

나. 주요 분석 변수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소득, 재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원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주요 변수는 <표 2>와 같다. 경제적 자원에서는 경제적 자원 수준과 이들이 자립적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경제적 자원 수준(크기)으로 균등화한 가구소득과 가구 재산,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결합하여 함께 살펴보

다. 소득·재산 결합 유형은 <표 3>의 가구소득 분포와 가구재산 분위에 따른 소득 분포를 고려해 구분하였다. 가구소득 전체 평균인 297만 3000원과의 편차를 고려해 평균 이하인 1~3분위, 평균 이상인 4~5분위의 두 개 그룹으로 재구분, 가구재산의 경우 가구소득 평균 이하인 1~2분위, 평균 수준인 3분위, 평균 이하인 4~5분위로 재구분하여 이들의 결합 유형을 활용하였다. 자립적 수입원 보유는 수입액을 구성하는 원천이 되는 경제활동 여부와 기초연금,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제도 수혜 여부를 본다. 또한 경제적 수입원 관련해 노인들에게 중요한 생애 사건 중 하나인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경험 여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외 사회적 불안에

[표 2] 주요 변수 설명

| 구분 | 변수 | 변수 설명 및 처리 |
|----------------------|-------------|--|
| 노후 경제적 자원 수준 (주요 변수) | 소득 | 균등화한 가구소득 ¹⁾ |
| | 가구재산 | 범주형의 중간값을 대표값으로 처리 ²⁾ |
| | 소득·재산 결합 유형 | 소득 1~3분위, 4~5분위와 재산 1~2분위, 3분위, 4~5분위의 결합 |
| 노후 경제적 자원 수입원 관련 변수 | 근로 형태 |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 1=상용직, 2=임시·일용직, 3=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4=일 안 함 ³⁾ |
| | 은퇴 경험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경험 여부 1=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음, 2=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3=평생 소득 목적으로 일한 적 없음. |
| | 정부 지원 수혜 여부 | 기초연금, 국민연금·특수지역연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 통제 변수 | 개인 경험 | 경제 위기 등 경험, 코로나 영향 경험, 차별 및 박탈 경험 |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 상태, 동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원망 수, 개인 불안 |

주: 1) 세후 소득을 동거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임.

2) 1=1500만 원 미만, 2=1500만~5000만 원 미만, 3=5000만~1억 원 미만, 4=1억~2억 원 미만, 5=2억~5억 원 미만, 6=5억~10억 원 미만, 7=10억 원 이상.

3) 조사 데이터에서 ‘평생 일 경험 없는 경우’와 ‘현재 일 안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 소득 및 재산 수준

(단위: 만 원, %)

| 구분 | | 소득 ¹⁾ | |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소득 (만 원) | 평균 | 96.5 | 166.4 | 249.6 | 380.9 | 598.3 | 297.3 |
| | 최소 | 30.0 | 134.4 | 201.2 | 296.9 | 460.0 | 30.0 |
| | 최대 | 130.0 | 200.0 | 294.5 | 459.6 | 1414.2 | 1414.2 |
| 재산 (%) | 1500만 원 미만 | 3.4 | 1.0 | 0.0 | 0.0 | 0.0 | 0.9 |
| | 1500만~5000만 원 미만 | 14.0 | 5.0 | 2.1 | 0.0 | 0.0 | 4.3 |
| | 5000만~1억 원 미만 | 37.7 | 20.5 | 6.7 | 8.5 | 3.0 | 15.5 |
| | 1억~2억 원 미만 | 31.9 | 31.5 | 20.2 | 8.5 | 7.0 | 19.9 |
| | 2억~5억 원 미만 | 10.1 | 35.0 | 43.0 | 30.5 | 23.0 | 28.1 |
| | 5억~10억 원 미만 | 2.4 | 7.0 | 21.8 | 34.0 | 23.5 | 17.6 |
| | 10억 원 이상 | 0.5 | 0.0 | 6.2 | 18.5 | 43.5 | 13.7 |

| 구분 | | 재산 ²⁾ | |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소득 (만 원) | 평균 | 158.4 | 208.6 | 312.4 | 381.9 | 496.1 | 297.3 |
| | 최소 | 30.0 | 49.5 | 49.5 | 70.7 | 125.0 | 30.0 |
| | 최대 | 700.0 | 1000.0 | 1414.2 | 848.5 | 880.0 | 1414.2 |

주: 1) 소득은 가구 균등화 소득을 의미함.

2) 범주형으로 된 재산의 경우 5분위로 구분 시 표본 분포를 고려하여 1분위 207명, 2분위 199명, 3분위 281명, 4분위 176명, 5분위 137명으로 구분.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사건(경제 위기 및 코로나 영향) 경험 여부와 차별 및 박탈 경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 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3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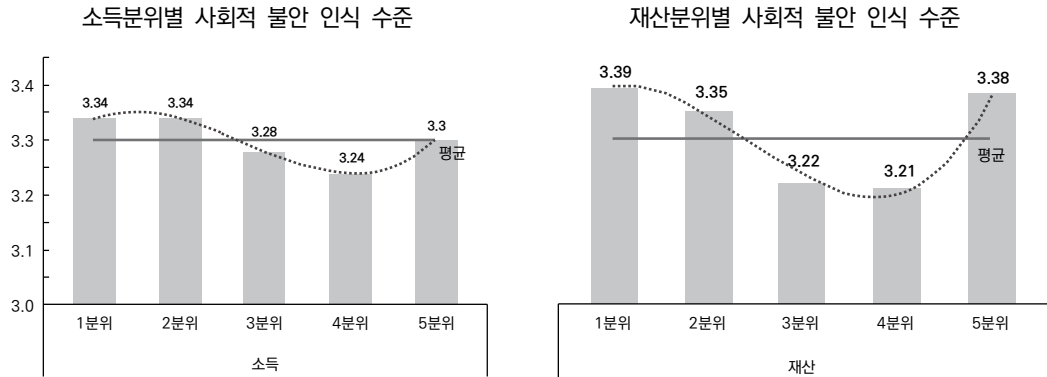
가. 소득·재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과 내용

[그림 2]와 <표 4>에는 소득분위별, 재산분위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소득과 재산 분위에 따라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낮은 분위일수록 높은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부족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는 경우 사회적 불안 인식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은 소득 및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적 불안과 연결될 수 있음을 유

[그림 2]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점)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점)

| 구분 | 소득 | | | | | 재산 | | | | | 평균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 사회불안 | 3.34 | 3.34 | 3.28 | 3.24 | 3.30 | 3.39 | 3.35 | 3.22 | 3.21 | 3.38 | 3.30 | |
| 영역 | 격차경쟁 | 3.57 | 3.63 | 3.56 | 3.49 | 3.56 | 3.65 | 3.67 | 3.49 | 3.44 | 3.57 | 3.56 |
| | 불공정 | 3.45 | 3.47 | 3.41 | 3.36 | 3.40 | 3.53 | 3.52 | 3.32 | 3.29 | 3.47 | 3.42 |
| | 안전 | 3.02 | 2.97 | 2.93 | 2.95 | 3.02 | 3.08 | 2.89 | 2.89 | 2.99 | 3.11 | 2.98 |
| | 정부 불신 | 3.28 | 3.33 | 3.29 | 3.31 | 3.29 | 3.36 | 3.35 | 3.19 | 3.21 | 3.47 | 3.30 |
| | 적응·도태 | 3.25 | 3.17 | 3.13 | 3.01 | 3.11 | 3.19 | 3.18 | 3.09 | 3.04 | 3.20 | 3.14 |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할 수 있다.

많은 노인들에게 높은 소득이 반드시 높은 자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들의 불안정한 소득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과거부터 축적된 자산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결합 유형을 통해 이들의 소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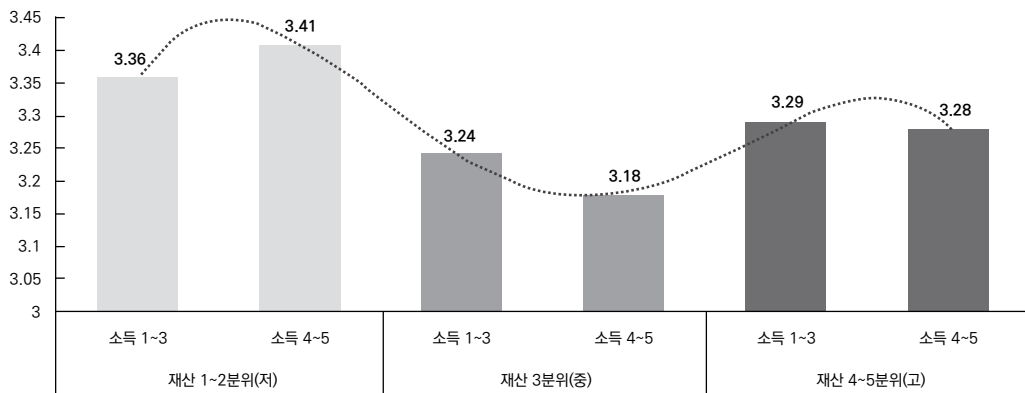
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를 살펴봤다.

〈표 5〉에서는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과 영역별 사회적 불안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는 재산 분위별 사회적 불안 인식 수준과 동일한 재산분위에 속한 집단 내 소득수준에 따른 불안 인식 수준 차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 동일한 재산분위 내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 사회적 불안 인식의 차이는 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간 사회적 불안 인식보다 낮았다. 즉 재산 수준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 수준으로 구분한 저분위

[그림 3] 소득 및 재산 분위별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점)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단위: 점)

| 구분 | 재산 1~2분위(저) | | 재산 3분위(중) | | 재산 4~5분위(고) | | |
|------|----------------|----------------|----------------|----------------|----------------|----------------|----------------|
| | 소득 1~3분위 | 소득 4~5분위 | 소득 1~3분위 | 소득 4~5분위 | 소득 1~3분위 | 소득 4~5분위 | |
| 사회불안 | 3.36 (0.50) | 3.41 (0.39) | 3.24 (0.50) | 3.18 (0.51) | 3.29 (0.43) | 3.28 (0.46) | |
| 영역 | 격차-경쟁 | 3.64 (0.57) | 3.79 (0.40) | 3.50 (0.57) | 3.47 (0.61) | 3.53 (0.52) | 3.49 (0.49) |
| | 불공정 | 3.51 (0.63) | 3.62 (0.49) | 3.34 (0.61) | 3.28 (0.63) | 3.35 (0.51) | 3.37 (0.61) |
| | 안전 | 2.99 (0.66) | 2.97 (0.66) | 2.91 (0.68) | 2.86 (0.62) | 3.03 (0.56) | 3.05 (0.61) |
| | 정부 불신 | 3.33 (0.66) | 3.49 (0.65) | 3.23 (0.76) | 3.12 (0.72) | 3.27 (0.61) | 3.34 (0.70) |
| | 적응-도태 | 3.22 (0.66) | 3.00 (0.72) | 3.14 (0.58) | 3.01 (0.64) | 3.16 (0.57) | 3.10 (0.64) |
| 비율 | 35.2 | 5.4 | 17.4 | 10.7 | 7.4 | 23.9 | |

주: 괄호 안은 표준편차를 의미함.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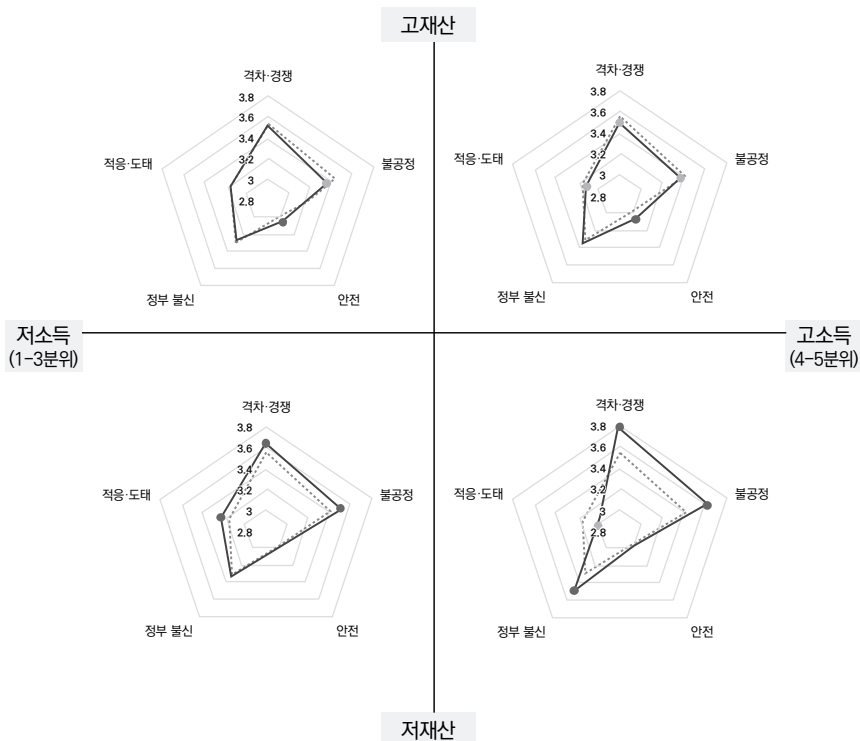
와 고분위에서 사회적 불안 수준이 중분위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소득을 상승시키고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행태와 더불어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가 모두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불안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4]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불안 수준을 보이는 소득·결

합 유형의 (재산 기준) 양극단에 위치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불안의 내용을 전체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불안 수준이 평균(적정한) 수준에서 벗어난 양상이 특정한 경향을 보인다면 그 경향 및 특성을 살펴보고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바로잡기 위한 수단 및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사분면에 위치한 재산과 소득수준이

[그림 4]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사회적 불안 인식 영역별 차이

(단위: 점)



주: 1) 점선은 노인(65~74세) 사회적 불안 영역별 평균 점수, 실선은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사회적 불안 영역 평균 점수.
 2) 제1사분면은 소득 4-5분위-고재산, 제2사분면은 소득 1-3분위-고재산, 제3사분면은 소득 1-3분위-저재산, 제4사분면은 소득 4-5분위-저재산.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높은 집단은 노인 전체 평균에 비해 격차·경쟁, 불공정, 적응·도태 관련 불안은 낮게, 개인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안전 불안 영역의 불안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높은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대부분의 사회적 불안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다만 안

전 불안 영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2사분면은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높은 집단으로 경제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 또한 안전 불안 영역이 평균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기의 불안정한 소득원을 고려하면 축적된 재산이 높은 집단에

[표 6]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특성

(단위: 만 원, %, 명)

| 구분 | | 소득·재산 결합 유형 | | | | | |
|--------------------|--------------|-------------|---------|-----------|-------------|---------|------|
| | | 재산 1~2분위(저) | | 재산 3분위(중) | 재산 4~5분위(고) | | |
| | | 소득(1~3) | 소득(4~5) | 소득(1~5) | 소득(1~3) | 소득(4~5) | |
| 가구균등화 소득(만원) | 평균 | 141.1 | 456.0 | 312.4 | 227.2 | 495.3 | |
| | 최소 | 30.0 | 300.0 | 49.5 | 70.7 | 296.9 | |
| | 최대 | 294.4 | 1000.0 | 1414.2 | 288.7 | 880.0 | |
| 근로소득 비율(%) | B/A(%) | 69.6 | 58.2 | 59.9 | 83.4 | 68.5 | |
| | 가구소득(만 원, A) | 193.6 | 662.6 | 480.1 | 346.9 | 809.7 | |
| | 근로소득(만 원, B) | 134.7 | 385.6 | 287.5 | 289.4 | 554.9 | |
| 경제활동 (%) | 안 함 | 36.6 | 44.4 | 41.6 | 51.4 | 38.5 | |
| | 일함 | 63.4 | 55.6 | 58.4 | 48.6 | 61.5 | |
| | 상용직 | 12.1 | 16.7 | 17.1 | 19.4 | 14.3 | |
| | 임시직 | 22.4 | 13.3 | 9.8 | 2.8 | 2.0 | |
| | 일용직 | 9.9 | 6.7 | 5.5 | 5.6 | 0.0 | |
| | 고용주 | 2.7 | 3.3 | 6.7 | 5.6 | 18.4 | |
| | 자영자 | 46.6 | 60.0 | 56.7 | 66.7 | 61.2 | |
| | 무급가족 | 6.3 | 0.0 | 4.3 | 0.0 | 4.1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
| 은퇴 경험 (%) | 주된 일자리 유지 | 43.2 | 40.7 | 37.7 | 32.4 | 43.1 | |
| | 은퇴했음 | 48.0 | 48.2 | 50.5 | 54.1 | 49.0 | |
| | 일 경험 없음 | 8.8 | 11.1 | 11.8 | 13.5 | 7.9 | |
| 정부 지원 수혜 (%) | 기초연금 | 75.3 | 46.3 | 48.8 | 29.7 | 12.6 | |
| | 국민·특수지역 연금 | 27.3 | 33.3 | 38.1 | 50.0 | 37.7 | |
| | 재정지원일자리 | 4.6 | 3.7 | 1.8 | 1.4 | 0.4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 14.5 | 25.9 | 2.1 | 0.0 | 0.0 | |
| 인구사회학 특성 | 동거 가구원 수(명) | 1.8 | 2.3 | 2.4 | 2.4 | 2.8 | |
| | 성별 (%) | 남성 | 47.4 | 42.6 | 48.8 | 35.1 | 49.4 |
| | | 여성 | 52.6 | 57.4 | 51.2 | 64.9 | 50.6 |
| | 교육 (%) | 중졸 이하 | 62.5 | 38.9 | 34.5 | 33.8 | 10.9 |
| | | 고졸 | 35.2 | 53.7 | 58.0 | 58.1 | 60.7 |
| | | 대졸 이상 | 2.3 | 7.4 | 7.5 | 8.1 | 28.5 |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산과 소득이 모두 낮아 경제적 불안정성이 가장 큰 집단의 경우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적응·도태 관련 불안 수준이 전체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은 낮으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의 경우에도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정부 불신 관련 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기 특성상 불안정한 소득원으로 인해 재산이 적은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적정 수준 이상의 소득원을 가진 집단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측정하는 적응·도태 관련 불안은 평균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재산 결합 유형별 사회적 불안 수준의 차이에서 이들의 불안 내용이 다름을 확인했다. 여기에 더해 유형별 집단 간 경제적 자원 특성뿐 아니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낮은 재산 집단 내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임시·일용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 비해 근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으며 동시에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가장 낮으며,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1인가구 비율 또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들의 경우 지속해서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노출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재산이 높은 집단의 경우 고용주 및 자영업자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사회적 불안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 분석

〈표 7〉에는 사회적 불안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지역, 건강상태, 사회적 사건 관련 경험, 개인 불안을 통제하였으며,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소득수준은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재산이 많을수록 사회적 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때 사회적 불안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은 사회적 불안을 줄이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불안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득과 재산의 결합 유형이 사회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소득과 재산 모두 낮은 그룹에서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이 사회적 격차 및 불공정·불확실과 관련된 불안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이 높으나 재산이 낮은 그룹에서 사회적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 그리고 정부 불

[표 7] 사회적 불안에 대한 경제적 자원 영향

| | | 사회불안 인식 | | 사회불안 영역별 | | | | |
|--|-------------------------------------|---------------------|---------------------|---------------------|---------------------|--------------------|---------------------|---------------------|
| | | 모델 1 | 모델 2 | 격차·경쟁 | 불공정·불확실 | 안전 | 정부 불신 | 적응·도태 |
| 가구소득 | | 0.02 (0.024) | - | - | - | - | - | - |
| 가구소득×가구소득 | | -0.00 (0.002) | - | - | - | - | - | - |
| 가구재산 | | -0.08*** (0.022) | - | - | - | - | - | - |
| 가구재산×가구재산 | | 0.01*** (0.002) | - | - | - | - | - | - |
| 소득 · 재산 결합 (ref: 중재 산) | 소득 1~3분위 -저재산 | - | 0.08* (0.044) | 0.12** (0.051) | 0.13** (0.056) | -0.01 (0.057) | 0.06 (0.063) | 0.06 (0.056) |
| | 소득 4~5분위 -저재산 | - | 0.14** (0.062) | 0.24*** (0.067) | 0.22*** (0.076) | 0.03 (0.094) | 0.24** (0.104) | -0.04 (0.088) |
| | 소득 1~3분위 -고재산 | - | 0.12** (0.058) | 0.09 (0.067) | 0.09 (0.071) | 0.17** (0.075) | 0.14* (0.085) | 0.12 (0.074) |
| | 소득 4~5분위 -고재산 | - | 0.12*** (0.044) | 0.00 (0.049) | 0.09 (0.057) | 0.25*** (0.058) | 0.20*** (0.068) | 0.09 (0.058) |
| 근로 상태 | (ref: 상용직) 일시·일용 | 0.14** (0.063) | 0.14** (0.064) | 0.20*** (0.074) | 0.23*** (0.086) | -0.00 (0.087) | 0.18* (0.096) | 0.05 (0.087) |
| | 자영·무급 | 0.10* (0.057) | 0.10* (0.058) | 0.14** (0.062) | 0.19*** (0.069) | -0.05 (0.075) | 0.18** (0.087) | 0.04 (0.078) |
| | 일 안 함 | -0.02 (0.063) | -0.03 (0.064) | 0.01 (0.068) | 0.05 (0.080) | -0.20** (0.086) | 0.05 (0.091) | -0.05 (0.085) |
| 은퇴 경험 | (ref: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함) 은퇴 경험 있음 | 0.17*** (0.041) | 0.17*** (0.041) | 0.16*** (0.046) | 0.21*** (0.052) | 0.17*** (0.056) | 0.16*** (0.058) | 0.16*** (0.057) |
| | 일 경험 없음 | 0.21*** (0.070) | 0.21*** (0.071) | 0.22*** (0.079) | 0.23*** (0.088) | 0.26*** (0.090) | 0.26** (0.100) | 0.08 (0.091) |
| 정부 지원 수혜 | 기초연금 수급 (ref: 미수급) | 0.06* (0.036) | 0.05 (0.036) | -0.01 (0.041) | 0.07 (0.046) | 0.04 (0.050) | 0.13** (0.052) | 0.09* (0.047) |
| | 공적연금 수급 (ref: 미수급) | 0.05* (0.033) | 0.05 (0.033) | 0.11*** (0.038) | 0.02 (0.043) | 0.02 (0.043) | 0.02 (0.051) | 0.05 (0.043) |
| | 재정일자리 (ref: 아니요) | -0.30*** (0.104) | -0.31*** (0.103) | -0.33*** (0.126) | -0.42*** (0.157) | -0.09 (0.132) | -0.55*** (0.156) | -0.23* (0.134) |
| | 기초생보 (ref: 미수급) | 0.04 (0.063) | 0.05 (0.063) | 0.08 (0.070) | 0.16** (0.075) | 0.03 (0.086) | 0.22** (0.093) | -0.27*** (0.091) |
| Constant | | 2.80*** (0.440) | 2.63*** (0.440) | 3.56*** (0.509) | 2.76*** (0.566) | 2.16*** (0.582) | 2.21*** (0.632) | 1.97*** (0.566) |
| obs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R-squared | | 0.171 | 0.160 | 0.143 | 0.133 | 0.167 | 0.116 | 0.162 |

주: 1) *** p<0.01, ** p<0.05, * p<0.1.

2) OLS 회귀분석의 계수이며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3)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 가구원 수, 지역, 건강상태, 사회적 사건 관련 경험, 개인 불안을 통제한 결과임. 소득과 재산의 경우 가구균등화 소득*0.01, 재산*0.0001로 스케일을 조정하였음.

출처: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이현주 외, 2023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에 대한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재산 축적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이 낮은 노인들이 경제적 불안정을 느끼고, 사회적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재산은 높은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적 자원이 안정적인 집단으로 안전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높은 집단의 경우도 안전과 정부 불신에 대한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은 경제적 자원이 더 많은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불안이 낮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불안, 정부 불신과 관련해서는 높은 불안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기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축적한 소득의 결과인 재산은 노인기에 특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즉 노인기에는 소득은 높이고, 재산은 축적하고자 하는 행태와 축적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행태가 모두 강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기 소득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축적된 재산이 높은 집단에서 재산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 불안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수입원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

면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안정적인 소득원의 상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정기적 수입의 감소는 경제적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근로 여부의 경우 종사상 형태에 따라 불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 종사자에 비해 임시·일용직, 자영·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불안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정부 불신에 대한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로 여부 자체가 불안의 주요 요인이자기보다는 이들의 일의 질과 관련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만 일, 은퇴 그리고 사회적 불안 관계의 경우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등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정부 지원 수혜 여부는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불안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중 재정지원일자리 경우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의 경우 불공정·불확실, 정부 불신 관련 불안 수준은 높으나, 적응·도태 관련 불안은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나가며

인간은 개인의 생애주기 속에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유발되는 위험이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 과정에서 위험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식하며 불안을 겪게 된다(채수미, 2016). 사회불안은 그 용어에서 내포하듯 사회적 성격을 가진 개념으로, 불안 원인이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다수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이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현상과 요인으로 발생하는가를 규정짓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등과 같은 사건들과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변화들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불안 인식과 연결될 수 있다. 노년기는 신체적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의료비용의 증가, 은퇴로 인한 정기적 소득의 감소 혹은 중단과 사회관계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경제적 자원은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유발되는 취약성에 대응하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적 불안에서의 소득과 재산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재산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많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산이 늘어날 경우 사회적 불안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노년기에 경험하는 불안은 노화 불안과 더불어 상실 불안이 크게 존재한다(곽윤경 외, 2021). 즉 노인의 경우 소득을 높이고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행태와 더불어 축적한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행태가 강할 수 있다. 은퇴로 인한 정기적 소득 감소 및 중단, 공적연금을 제외한 기초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변화 및 급여 중단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가짐에 따라 노년기의 소득은 불안정성이 높다. 이에 반해 그동안 축적한 소득의 결과인 재산은 경제적 안정성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산은 노인의 사회적 불안 수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재산을 보유한 노인들이 안전과 관련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재산이 적은 노인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위험에 대응할 자원 부족,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모두 낮은 집단, 소득이 높으나 재산이 낮은 집단에서 격차·경쟁 불안, 불공정·불확실 불안에 대한 불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재산 축적이 쉽지 않아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격차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재산 수준이 낮은 그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높게 나타났다.

재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높은 사회적 불안 인식은 격차와 불공정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안 인식의 중요한 현상이자 원인으로 격차와 불공정을 들 수 있다. 조세정책과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자산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이현주 외, 2023a). 다만 노인의 경우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민감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안정적 소득원 부재 특성으로 재산이 높은 집단의 재산 상실에 대한 불안, 재산이 낮은 집단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 불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평등 및 격차 대응과 관련해 재산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곽윤경 외, 2021). 공적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빈곤층 지원 과정에서 누락된 지원을 면밀하게 살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적한 자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인들에게 디지털 금융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산 관리 및 금융 거래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도 중요하다. 현재는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의 사회적 불안은 경제적 자원, 즉 경제적 안정성과 직결된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부재

에 대응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득 감소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는 사회적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격차·경쟁, 불공정·불확실, 안전, 적응·도태 불안의 모든 영역에서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은퇴로 인한 안정적 수입의 감소는 경제적 불안감을 야기함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 및 역할 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또한 높여 사회적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재정지원일자리 경우 노인의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들에게 일과 사회활동은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불안을 동시에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의 사회적 참여 및 고용 촉진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줄이고 자아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와 연결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도태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이 이들의 실제 필요와 어려움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사회적 불안의 근원과 요인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효과적인 사회적 개입과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상을 반영하는 수치화된 수준의 지표뿐 아니라 원인으로서의 ‘인식’ 역시 중요한 개념이므로 사회지표 중 하

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㉔

참고문헌

- 곽윤경, 김세진, 황남희, 전지현, 이현주. (2021).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노인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2), 1-29.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란, 변금선. (2020).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변금선, 전지현. (2022).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45-64세 집단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구혜란, 변금선, 전지현. (2023a).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구혜란, 변금선, 전지현. (2023b). **[미발간 데이터,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2020-2022 통합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수미. (2016).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 **보건복지포럼**, 9, 84-96.
- 통계청. (2023. 11. 28.). **2021년 국민이전계정** [보도자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American Psychiatric Publication.
- Heisel, M. J., & Flett, G. L. (2006).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Geriatric Suicide Ideation Scale.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9), 742-751.
- O'Keefe, p. Westgate, K., Wisner, B. (1976). Takin the naturalness out of natural disasters. *Nature*, 260, 566-7.
- Santini, Z. I., Jose, P. E., Cornwell, E. Y., Koyanagi, A., Nielsen, L., A., Hinrichsen, C., Meilstrup, C., Madsen, K. R., Koushede, V. (2020). Social disconnectedness, perceived isolation,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older Americans: a longitudinal mediation analysis. *The Lancet Public Health*, 5(1), e62-e70.

Economic Resources an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Lee, A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resources an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older adults. Asset wealth may decrease the level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mong older people. However, beyond a certain limit, greater asset holdings a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insecurity related to safety. Specifically, older adults with substantial assets tend to report higher levels of perceived insecurity about safety, whereas those with fewer assets show higher levels of perceived insecurity regarding gaps, competition, unfairness, and uncertainty. Given that older adults have few, if any, steady income sources, perceived insecurity about safety among those who possess significant assets is thought to stem from their fear of asset loss. Those with lower asset holdings may experience higher economic insecurity, leading to greater concerns about the future and their ability to cope with risks and uncertainti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enhanced support to help older people stabilize their economic conditions, with a view to lowering their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nd raising the quality of their lives.